

## “그거 제가 하고 싶은 일 하시네요!”

몽골의 아주 작은 ‘Make a Difference’를 위한 첫걸음



3650지구 한몽친선위원장 정순훈(서울무악RC)  
몽골 후레대학교 총장

2009년 6월쯤 배재대학교 총장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은 시기였다. 몽골의 작은 기독교 선교대학의 총장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총장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건국대학교에서 IT관련 학과에서 교수로 봉직하다 우연히 몽골에서 학원선교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생하시는 분 기분 좋게 헤드리려고 그냥 무심결에 뱉은 말이 “그거 제가하고 싶은 일 하시네요”였는데 이 말이 화근이었다.

적절한 후원자나 자신의 재산도 없이 그저 뜻 하나로만 2002년에 설립하여 8년을 운영하다 보니 지금은 자기 전화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산이 모두 바닥이 났으니 꼭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몇 개월에 걸쳐 하는 강권을 이기지 못해 그 대학의 총장을 맡으라는 제안에 승낙을 하게 되었다.

하긴 미국선교사가 세운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와 다시 미국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고, 특히 그 대학의 책임자가 되어 130여 년 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다 물에 빠진 제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분의 생을 흠모하게 된 것이 동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전혀 빈말은 아니었다. 집사람도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아서 은퇴하면 둘 다 아직도 건강하고 함께 교원연금도 받게 되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유치원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지인 캄차카 북쪽 지방을 스카치테이프를 문 수리한 낡은 비행기를 타고 은퇴 후의 작은 일을 찾아 몇 번이나 방문하긴 했었다.

대학원 나와 대전에서 줄곧 직장 생활을 하다 대학의 책임자가 되고 보니 아무래도 서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지도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서울무악 로타리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모임 날자가 화요일이라 학교일도 있고 하여 자주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 주로 대전 로타리에 참석하였다. 대전로타리의 창립멤버이시고 연세가 90세에 가까운 의사셨는데 그야말로 ‘초아의 봉사인’이었다.



후배에 대한 배려도 극진하셨다. 그분은 로타리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일생 자체가 로타리 정신을 실천하는 분이였다. 천성도 있었겠지만 아마 평생을 로타리를 위해 일하신 것이 그분을 향기 나는 분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로타리 회원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로타리에서 회의 때마다 건성으로 낭송하는 ‘네 가지 표준’도 또 하나의 동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정년이 아직 7년 정도 남았지만 작은 대학에 총장이 돌이나 있는 것도 현직 총장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8년이나 교수생활에서 동떨어져 행정 일만 하다가 교수로 돌아가는 것도 학생들이나 과 교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아들딸들도 다 장성하여 자기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집사람도 정년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교장을 한 덕분인지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가족들도 내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야말로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평생의 친구인 자유와 함께 삶의 가장 참되고 최고의 재미이며 금회기 로타리 테마인 ‘Make a Difference’의 작은 실천을 위해 몽골로 가게 된 것이다.